

도심 호수 정비로 휴식공간 제공

전주시, 에코시티 세병호·혁신도시 기기제·덕진공원·아중호수 등 주변 정비 추진

전주시가 곳곳에 위치한 호수를 쾌적하게 정비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제공키로 했다.

시가 시민들에게 도심 속 휴식·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에코시티 세병호 △혁신도시·만성지구 기지제 △덕진공원 △아중호수 등 다양한 도심호수 주변 정비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시는 내년까지 콘크리트로 포장돼 주민들이 이용 불편을

호수하는 에코시티 세병호 주변 산책로를 안전하게 정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올 연말까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3월부터 세병호 산책로 1.37km 구간의 폭 6m 중 2.5m를 탄성 포장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등 전주 서부권의 대표적인 친수공간인 기기제에는 총 40억원을 투입해 총 1.37km 구간(폭 2.5m) 규모의 순환형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지제 순환형 산책로 사업비는 만성지구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북개발공사, 전주시가 공동 부담하며, 시는 LH에서 추진한 실시계획을 바탕으로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주의 대표적인 친수공간인 덕진공원 연못도 지난 8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저수지 중 최초로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시

국비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돼 덕진연못 수질오염방지 및 수질개선대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 전주덕진공원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연화정은 올 연말까지 신축설계를 거쳐 전통한옥 건축물로 신축될 예정이다.

시는 향후에도 전주 곳곳의 물길과 도심호수를 정비해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도심 속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수중식물과 동물들이 살아가는 생태 보고로 유지해나갈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보건소는 28일 대구광역시 엑스코 인터볼고 호텔에서 열린 '2019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전국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잘했다'

전주시보건소, 우수 선정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가 시민들의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사업을 잘 수행한 기관으로 평가됐다.

전주시보건소는 28일 대구광역시 엑스코 인터볼고 호텔에서 열린 '2019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전국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주최하고 중앙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이 주관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전국대회'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전주시보건소는 이번 전국대회에서 심뇌혈관질환의 선형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보건소는 시민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실 △찾아가는 자기혈관 숫자알기(이동검진) △대사증후군 검사의 날 △심폐소생술 교육실 운영 △고혈압·당뇨 질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캠페인 등을 실시해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힘써온 공로를 인정 받았다.

이에 앞서 보건소는 올해 건강관리에 취약한 30·50 직장인 대상 찾아가는 혈압·혈당 측정 및 교육을 실시하고, 전주지역 경로당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자기혈관 숫자 알기 이동검진 및 교육을 확대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을 전개해왔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환자 조기발견사업을 통해 자신의 혈압·혈당·콜레스테롤을 인지하는 지역주민 수를 증가시켜 건강 증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팔복동 소재 '창해에탄올' 겨울맞이 난방용품 연료 지원

28일 팔복동(동장 송상윤) (취창해에탄올(대표이사 이연희)은 전주연탄은행(대표 윤국춘)을 통하여 팔복동 관내 취약계층에 난방연료(연탄, 등유), 난방용품(난방매트 및 이불) 등 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취창해에탄올(대표 이연희)은 팔복동에 소재를 두고 있으며, 소주의 원료인 '주정'을 생산하는 업체로 1966년 회사설립 이후 연탄봉사 및 장학사업, 지역축제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역의 발전과 상생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난방용품 및 연료지원행사에서 연탄 및 등유사용가구에 (취창해에탄올의 직원들이 직접 대상자들을 찾아 연탄배달봉사를 펼치며 안부를 묻는 등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연희 (취창해에탄올 대표)는 "취창해에탄올은 받은 만큼 베풀 수 있는 기업"을 기본으로 '지역민과 교감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나눔행사를 통해 겨울철 많은 사람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의 작은 나눔을 통해 이웃이 기뻐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에 송상윤 팔복동장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28일 정읍시의회에서 열린 제249차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 참석한 시군의회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내장산 국립공원 명칭 변경 반대"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읍서 결의안 채택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병술 전주시의회의장)가 내장산국립공원 명칭 변경 계획을 반대하고 나섰다.

'내장산' 명칭이 바뀔 경우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지역 간 갈등이 뒤따라며 경제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다.

협의회는 28일 정읍시의회에서 열린 제249차 월례회의에서 "전남 장성군이 백암산의 명칭 찾기는 명목으로 '내장산국립공원'의 명칭을 '내장산·백암산국립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해 환경부에 명칭변경을 공식

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며, 명칭 변경 반대 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지금까지 국립공원을 지명할 때 주산의 이름을 넣어 부르고 있으며 두 개의 명칭을 합하여 지명한 사실이 없다"며 "단일 공원으로 두 개의 명칭을 복합 사용하게 된다면 혼동을 야기하고 지명표기 변경에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협의회는 "명칭변경은 '내장산국립공원'의 고유 가치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지역 갈등 사안으로 확대 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명칭변경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및 각 정당대표 등에게 보낼 예정이다.

한편, 장성군은 그동안 1979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내장산국립공원의 명칭변경을 시도했으나 환경부의 반대에 막혀 무산됐었다.

박병술 회장은 "일부지역의 이익을 위하여 명칭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며 "전 국민을 혼동시키고 지역 갈등을 초래하는 지역 내장산국립공원 명칭 변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간헐 전복지부 김장봉사 실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본부장 배기웅)는 28일 간헐사탕어머니봉사단과 함께 완주군 소양면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송광 정심원에서 '사랑의 김장 봉사'를 실시했다.

사랑의 김장 봉사는 간헐 전복지부 직원 및 간헐사탕어머니봉사단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난 2008년 시작돼 12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이날 봉사에서는 약 3천여 포기씩의 절임배추에 소를 버무려 김장김치를 담갔으며 김장김치는 밑반찬 및 찜개 등으로 조리해 정심원생들의 밥상을 풍요롭게 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식당 침입 술 흠치다 '덜미'

영업이 끝난 식당에 침입해 주류를 훔친 A모(57)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전주완산경찰서는 완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소주 등을 훔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9일 새벽 2시 30분경 영업을 끝난 완산구의 모 음식점에 침입, 냉장고에 보관 중인 10만 원 상당의 주류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수상 망을 쫓아오자, A 씨는 자진 출석해 경찰에 검거됐다.

/정다운 기자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역 점검

노인회관 조성 사업지 등 6곳 전주시의회 행정위 현장 활동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 백영규 의원)가 28일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지역 '전주시 노인회관 조성 사업지 등 6곳'의 현장 활동에 나섰다.

행정위원회는 이번 현장 활동에서 제365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상정될 안건으로 관계부서의 보고와 토론 후 전주시 노인회관 조성사업,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중인동 시내버스 회차지 확장 조성사업, 전주푸드 직매장 신축사업, 평화동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영화 교류활성화 공유공간 등 조성예정지 등 현장 6곳을 찾아 사업대상지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등 세밀한 심사활동을 펼쳤다.

특히, 위원회는 전주푸드 직매장 신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 백영규 의원)가 28일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지역 '전주시 노인회관 조성 사업지 등 6곳'의 현장 활동에 나섰다.

축예정지를 방문하여 최근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된 바와 같이 협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백영규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의정 활동은 서류보고와 토론에 그치지

않고 직접 시민의 눈이 되어 철저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며 "지속적인 현장방문활동을 통해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항상 노력하고 연구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겨울철 대비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강화

전주시보건소, 보온용품 배부 등 '건강 겨울나기' 지원

전주시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홀로 거주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폭설·한파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한파대비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한층 강화해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소는 14명의 방문 전문인력을 활용해 독거노인,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 가정과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혈압·혈당과 같은 기초건강상태를 측정하고, 주요질환별 겨울철 건강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소는 또 월별 건강정보 및 건강관리요령을 수록한 2020년도 건강달력을 제작·배포하는 한편, 뇌졸중 발생 위험이 높은 노약자나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따뜻한 방한마스크도 지급하고 있다.

특히 한파주의보(영하 12°C 이하)나 한파경보(영하 15°C 이하) 발령 시에는 방문간호사와 건강도우미, 자원봉사자 등 20여명이 안부전화와 수시방문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와 함께 보건소는 폭설·한파에 취약한 심혈관계질환자와 거동불편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파대비 행동요령'과 '빙판길 낙상사고 예방법', '한랭질환 증상 및 대처방법'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올해 보건소 방문보건센터에서는 재가암환자와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장애인 등 취약계층 5,500여 가구를 등록해 동별 담당간호사가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전주시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와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내달 중순부터 닳나무 재배농가 수확 절차 진행

전주시, 내달 10~20일 사이 수확 후 한지원료 가공

전주시가 우수한 품질의 전통한지를 제조하기 위해 전주에서 재배된 고품질 닳나무를 수확하기로 했다.

시는 전주 전통한지의 전통 계승과 한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7년 식재한 닳나무의 첫 수확 시기를 맞아 수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부터 한지의 주원료인 닳나무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과 고품질 전통한지 생산을 위해 우아동과 중안동의 6개 농가(11개 필지, 1만8688㎡)와의 계약을 통해 1만 1800주의 닳나무를 식재했으며, 식재 3년 만에 첫 수확을 앞두고 있다.

시는 계약재배한 닳나무의 수확을 위해 품질 등급을 매기고 수확시기인 오는 12월 중순 수확된 닳나무를 매입함으로써 고품질 전주한지를 생산할 계획이다. 수확사업은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수행하며, 재배

농가와 한지 제조업체를 연계함으로써 외국인 저 품질 닳나무 유입을 차단하도록 힘쓰기로 했다.

올해 닳나무 수확량은 닳나무 줄기 약 2만kg(20t)으로, 닳나무 껍질은 벗긴 후피 생산량은 약 4000kg(4톤)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활용하면 대발치(75x145cm크기) 기준으로 약4만장(A4 기준, 48만 장) 정도의 한지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오는 12월 10일~20일 사이 계약재배 농가에서 닳나무를 수확하면 이를 수매한 후 올 연말 닳나무 작업(샐기, 껍질 벗기기 등)을 통해 한지원료로 가공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1월경 전주한지장 및 한지제조업체에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전주산 닳나무를 사용해 고품질의 전주한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